

# 앎과 생각함, 진리, 그리고 esti\*

— 파르메니데스의 단편 2~8을 중심으로 —

김 보 현

## 1. 들어가며

Eon(what-is, being)은 생성소멸하지 않는다, 연속적이다, 불변/부동이다, 완전하다, 구와 같다, 등의 주장이 담긴 파르메니데스의 육각운 형식의 시는 대략 그 150행 가량이 학술사가들의 저작 속에서 단지 단편적으로만 발췌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본래 배열 순서와 정확한 문맥에 대해서는 단지 추측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승배경 외에도, 그것이 운율을 따르는 시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는 점 또한 다양한 해석들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파르메니데스의 단편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학자들에 의해 흔히 ‘진리의 길’이라 불리는 단편 2에서 단편 8의 51행 까지의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후의 부분, 즉 ‘독사의 길’이라 불리는 부분이다.

학자들이 파르메니데스 연구에서 문제삼는 것들은, 단편 2에서 제시되는 esti(is)의 주어, estin(is), einai(to be), eon(what-is)이라는 말들에서 발견되는 esti 동사의 의미, 탐구의 길이 뜻하는 바와 그 개수, 일반적으로 독사(doxa)<sup>1)</sup>라고 알려진 단편 8의 51행 이후 부분

\* 이 글은 글쓴이의 석사학위논문 〈파르메니데스의 진리의 길〉에 기초한 것이다. 편의상 희랍어는 로마자화하여 표기한다.

1) 희랍어의 doxa라는 말은 “~인 것 같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희랍어 동사 doke의 동족어로서 영어로는 opinion, seeming, belief 등으로 옮겨진다. 여기서는 그냥 독사라고 표기한다.

의 지위 등으로 다양하다.<sup>2)</sup> 이 글은 ‘진리의 길’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안에서의 esti와 eon의 의미 해명을 목표로 삼으며, ‘독사의 길’의 지위 및 그것과 ‘진리의 길’과의 관계 등은 이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sup>3)</sup>

## 2. 탐구의 두 길: Fr. 2.

단편 2에서 여신은 탐구(dizēsis)의 유일한 두 길은 각각 “hōpos estin te kai hōs ouk esti mē einai” (that is and that cannot not be<sup>4)</sup>)와 “hōs ouk estin te kai hōs xreōn esti mē einai” (that is not and that needs must not be)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 진리를 따르는 설득의 길과 배울 수 없는 길이라고 선언된다.

기이하게도, 이 두 탐구의 길은 모두 주어가 없는 동사들로만 이루어져 있다.<sup>5)</sup> 파르메니데스의 단편이 정교하고 치밀하게 쓰여진 작품이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으므로, 주어의 누락은 사소한 실수일 수는 없다. 그러나 주어가 의도적으로 누락되었다는 것을 인정하

2) Kerferd, G. “Parmenide”, *Phronesis* 34(1989), pp.227 – 231.

3) 사실 독사의 지위, 그리고 파르메니데스 시의 큰 두 부분인 독사에 대한 부분과 진리에 대한 부분과의 관련은 파르메니데스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가 성공적으로 풀릴 때 파르메니데스와 그 이전의 철학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연속점과 단절점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도대체 무엇이 파르메니데스로 하여금 “estin ē ouk estin” (is or is not) (Fr. 8, 16)이라고 선언하도록 동기부여의 역할을 담당했는가, 파르메니데스는 자신의 선행 철학자들의 사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4) 희랍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때문에 같은 계통인 영어 번역을 병기한다. 여기서 차용된 번역은 Gallop의 것이나(Gallop, G. *Parmenides of Elea*(Toronto, 1984)), 파르메니데스 해석에 있어서의 그의 입장과는 특별한 관련을 갖지 않는다.

5) 희랍어에서 동사는 인칭에 따라 그 어미를 달리 하므로 주어는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esti가 주어 없이 제시되나 그 주어가 문맥상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라도 이 두 길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위해서 의미상의 주어는 찾아질 필요가 있다.

나는 이 두 길이 탐구의 길이라 불린다는 점에 근거해 이 두 길의 주어를 탐구의 대상(O)이라고 보려 한다. Kahn이나 Barnes도, 단편의 내용상 길의 명시되지 않은 주어는 탐구의 목적어와 동일하다는 입장을 취한다.<sup>6)</sup> 이 경우, 파르메니데스의 탐구의 두 길은 〈O is and O cannot not be〉, 〈O is not and O needs must not be〉로 나타나며, 두 길이 나뉘게 되는 기준은 탐구의 대상이 is이거나 is not이거나 하는 것이다. is의 의미를 몇가지 해석들에 따라 존재적, 진리적, 술어적인 것으로 놓을 때, 탐구의 두 길들은 다음과 같다.

#### a) 존재적 해석

탐구의 대상은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탐구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b) 진리적 해석

탐구의 대상은 참이고 참이 아닐 수 없다.

탐구의 대상은 참이 아니고 참이 아니어야 한다.

#### c) 술어적 해석

탐구의 대상은 ~이고 ~이지 않을 수 없다.

(혹은 최소한의 하나의 술어를 가지며 갖지 않을 수 없다)

탐구의 대상은 ~이지 않고 ~이지 않아야 한다.

(혹은 최소한의 하나의 술어를 갖지 않으며 갖지 않아야 한다.)

나는 이 글에서, 파르메니데스의 탐구의 두 길이 c)에 해당됨을 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파르메니데스 자신이 is(esti)의 여러 의미들을 현대의 우리가 하듯 구분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현대의 우리가 구분하는 is의 여러 의미 중 술어적-계사적 의미를 파르메니데스의 esti에 줄 때, 그의 단편들이 가장 잘 이해되며,

6) Kahn, C. "The Thesis of Parmenides", *Review of Metaphysics* 22(1966), Barnes, J.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London, 1982).

이로 미루어 그가 *esti*, *eon*에 주고자 한 의미가 술어적-계사적 의미였으리라 추정된다는 것이다.

술어적 해석에 따를 때, 두 길에 대한 단편 2의 부연설명인 6~8행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탐구의 대상이(부정적으로만 한정되어) ‘~ 아닌 것’일 경우, 이러한 대상 *mē eon*은 알려질 수도 지시될 수도 없다.<sup>7)</sup> 왜냐하면 탐구의 대상이(긍정적으로 한정되어) ‘~ 인 것’일 때에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알게 되고 또 무언가를 지시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탐구의 대상이 ‘~ 인 것’인 경우, 탐구의 대상이 어떤 술어를 하나라도 갖는 그 경우에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알게 되고 또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 아닌 것’ (*mē eon*)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왜 그것은 알과 지시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없는가는 파르메니데스의 단편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에 대한 암시는 감각경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단편 6과 7에서 찾아질 수 있다.

흥미롭게도, 파르메니데스는 실제 사태와 인식내용을 구별하지 않거나 그 사이에 어떤 기반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그것은 빨갛다” (it is red)라고 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탐구의 대상은 '(빨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빨갛지 않은데 특별한 조명에 의해서 그 순간에만 빨갛게 보인 것일 수도 있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다.<sup>8)</sup> 그런데도 파르메니데스는 탐구의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인 것’이고 그렇기만 하면, 이로써 진리의 조건은 달성된다고 보는 것 같다(Fr. 2. 1. 4). 이것이 과연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일 수 있는가, 파르메니데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단편에서의 *esti*의 의미가 더 자세히 밝혀짐에

7) 존재적 해석에서는 *mē eon*이 알려질 수도 지시될 수도 없는 것은 그것이 비존재 혹은 비존재자이기 때문이며, 진리적 해석에서는 그것이 참이 아닌 경우 우이기 때문이다.

8) 이러한 문제는 술어적 해석이 아닌 존재적 해석이나 진리적 해석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탐구의 대상이 존재한다거나 참이라거나 하는 것이 기반일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탐구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진리가 보장되는가 하는 물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 명확해질 것이다.

### 3. 말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Fr. 6~7.

단편 6과 7은 습관, 경험, 감각에 매여 분간 못하는(*akrita*) 가사자들(*brotoi*)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단편의 첫 행에서 여신은 파르메니데스에게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각각 명령하고 금지한다. “*xrē to legein te noein t'eon emmenai*”와 “*ou gar mēpote touto damēi einai mē eonta*”가 그것이다.

여신은 “*mē eonta einai*(things that are not are x 혹은 x are not things that are)<sup>9)</sup>가 절대 강요되지 않도록 하라. 너는 이 탐구의 길로부터 생각을(*noēma*) 막아라”(Fr. 7. I. 1~2)라고 파르메니데스에게 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여신이 금지하는 것은 습관과 경험, 감각과 관련되는 것임이 드러난다. 이는 귀멸고 눈먹고 얼빠진, 아무 것도 모르는 채 헤매는 가사자들, 헤매는 누스(*plaktos noos*)의 소유자인 가사자들에 대한 단편 6의 서술과 일치한다. 반면 단편 6에서 여신이 말하고 생각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eon emmenai*(what-is is x 혹은 x is what-is)”이다. 이는 단편 7에서 여신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여 금지한 “*mē eonta einai*”와 정확한 대조를 이룬다.

“*eon emmenai*”와 “*mē eonta einai*”가 뜻하는 바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단편 6의 1행 “*xrē to legein te noein t'eon emmenai*”가 “*eon emmenai*(what-is is 혹은 x is what-is)라고 말하고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번역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문법적으로는, 이러한 번역 외에도 “*eon(what-is)*을 말하고 생각해야만 한다” 혹은 “말해질 수 있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있어야만 한다”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sup>10)</sup>

9) 쓰여진 희랍어 어구만으로는 두 가지 번역이 모두 가능하다. 이 글에서 취하는 해석에서는 이 두 번역 간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단편 6의 1행을 “eon emmenai라고 말하고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읊기는 것이 적합함을 지지해줄 근거는 단편 2의 7~9행과 단편 8의 7~9행에서 찾아질 수 있다. 단편 2의 7~9행에서 여신은, 탐구의 두 번째 길이 전혀 배울 수 없는 길인 이유는 “mē eon은 알려질 수도 지시될 수도 없다”는 데 있다고 하며, 단편 8의 7~9행에서는 “mē eon으로부터 (ek mē eontos, from what-is-not)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ouk esti(is not)라고는 말해질 수도 생각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mē eon과 ouk esti를 언급함에 있어서의 미묘한 어법상 차이이다. 첫 번째로, 여신은 mē eon을 앎과 지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여신은 mē eon으로부터 말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ouk esti라고는 말해질 수도 생각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단편 8의 7~8행에서 여신이 mē eon을 말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고, mē eon으로부터 말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앎과 지시의 대상과, 말함과 생각함의 내용 간의 의식적 구분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sup>11)</sup>

그렇다면 파르메니데스의 단편에서 esti(is)는 말해지고 생각될 수 있는 것으로 유일하게 허락되는 내용이며, eon(what-is)은 알려질 수 있고 지시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eon emmenai”는, 알려질 수 있고 지시될 수 있는 대상, 즉 궁정적으로 한정된 ‘~인 것’ 만이 esti의 주어 혹은 술어로<sup>12)</sup> esti와 결합될 수 있으며 생각함과 말함의 내용이 된다는

10) “xrē to legein te noein t'eon emmenai”를 “eon emmenai(what-is is)라고 말하고 생각해야만 한다”로 읊기는 학자는 O'Brien과 Finkelberg이다. 반면 Tarán과 Kahn은 “eon을 말하고 생각해야만 한다”로, 그리고 Burnet, Cornford, Owen은 “말해질 수 있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존재해야만 한다”고 읊긴다. Tarán은 마지막의 번역 선택지와 같은 경우를 보여주는 용례가 없다고 하여 이를 비판한다.

11) 단편 6의 1행에 사용된 동사는 legein과 noein인 반면, 단편 8의 8행에 사용된 동사는 phasthai noein인 반면, legein과 phasthai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동사는 둘다 ‘말하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다.

12) 각주 9의 내용 참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으로만 한정된 ‘~아닌 것’은 esti의 주어나 술어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아닌 것’과 esti의 결합은 생각되어서는 안 될을 또한 의미한다.

“mē eonta einai”라고 말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 다시 말해 mē eonta가 einai와 결합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앎과 지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데 있다. 단편 2의 내용에 따르면, mē eon 은, ouk esti이고 ouk esti여야만 하는 경우에 속하는 탐구대상이다. 그리고 단편 2의 “ouk esti이고 ouk esti여야만 한다”는 구절은, 단편 7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감각경험의 특성과 깊이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단편 6에서는, 가사자들의 정신(*noos*)은 어찌할 수 없음 (*amēchaniē*)에 인도되어 헤매며, 가사자들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여, 감각경험에 매인 가사자들이 처하게 되는 상태가 묘사된다. 감각경험의 특성은 그것이 부단히 변화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며 반대로 생겨나기도 한다는 데 있다. 파르메니데스가 이것을 앎과 지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은, 역으로 그에게 앎과 지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항상 고정적인 것, 불변하고 영원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감각경험의 특성과 관련되어 앎과 지시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되는 mē eon(what-is-not)은 어떠하다고 혹은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긍정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한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정적 한정의 막연함이 앎과 지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결국 우리가 “x는 ~이 아니다”(x ouk esti ~, x is not ~)라고 할 때 주어지는 앎이나 지시의 대상은 없으며, 이를 통해 막연하게 한정된 ‘~아닌 것’(mē eon, what-is-not)은 다시 esti와 결합되어(mē eonta einai) 말해지거나 생각될 내용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단편 2와 6, 그리고 7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mē eonta einai”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이제 이러한 예비적 분석을 실마리 삼아, 파르메니데스의 까다롭고 난해한 단편들 기저에 숨어 있는 진정한 목표를 탐색해보기로 하자.

#### 4. eon의 표지들(semata): Fr. 8.

단편 2에서 두 길이 제시된 방식, 그리고 ‘길’(hodos)이라는 말의 사용은 파르메니데스의 관심이 진리의 어떤 구체적 내용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진리에로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에 있음을 암시한다. “*x is y*”에서 파르메니데스가 주목하는 것은 *x*도 *y*도 아닌 *is*이다. 그리고 이 문장 혹은 이 사실이 진리이려면 이 때의 *is*, *esti*가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x is y*”의 *x*나 *y*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is*(*esti*)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파르메니데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일 수 있다. *is*에 대한 설명도 *is*를 필요로 하기 때문, 즉 “*is is ~*”의 형태 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취한다면, 파르메니데 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제대로 된 문장으로 전달될 수조차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

첫 눈에 이미 생경해 보이는 *esti*와 *ouk esti*의 중성분사 *eon*과 *mē eon*이 도입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현대의 우리라면 “*is is ~*”라고 했을 것을 파르메니데스는 “*eon esti ~*”(Fr. 8. 1.3)라고 한 것이다. 이 경우 단편 8의 “*eon esti sema*” 문장에서의 *esti*는, 일상언어에서 사용하는 *esti*, 즉 “*x is(esti) y*”라고 할 때의 그 ‘*is(esti)*’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된 일종의 메타언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esti*라는 길의 표지들”은 “*x is y*”라는 문장 혹은 사실이 진리이기 위해서, 이 문장 혹은 사실을 구성하는, 즉 *x* 와 *y*를 연결시켜 주는, ‘*is(esti)*’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조건들, *esti*라는 길의 표지들은 생성소멸 하지 않음(*agenēton · anōlethron*), 전체로 하나의 사지임(*oulon mounomeles/mounogenes*<sup>13)</sup>), 부동임(*atremies*), 그리고 완전함

13) 사본에 따라 *oulon mounogenes*, *oulon mounomeles*, *esti gar oulomeles*, *mounon*

(teleston<sup>14)</sup>)이다. 이제, “hōpos estin te kai hōs ouk esti mē einai” (that is and that cannot not be)의 esti가 eon으로 변환되어 논의 주제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단편 8을 이 표지들에 따라 나누어 검토하면서, esti와 eon에 대한 지금까지의 주장이 어떻게 뒷받침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 4.1. Fr. 8. 5~21: eon은 생성소멸하지 않는다

생성소멸의 불가능성은 eon의 표지들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게 설명된다. 이는 그것이 eon의 다른 표지들에 관한 논의에서 필수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놀랍지 않다. eon의 생성소멸의 불가능성에 관한 내용인 5~21행은 다시 5~11행, 12~18행, 19~21행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생성소멸의 부정이 주로 논증된다 고 할 수 있는 부분은 5~11행이며, 12~18행에서는 5~11행에서 논의된 내용이 비유를 통해 반복되면서 단편 2의 탐구의 두 길과 연결된다. 그리고 수사적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eon의 생성소멸의 불가능성이 강조되는 19~21행은, 5~11행에서 사용된 ‘기원(genna)’ 및 ‘자라다(auxēthen, phyn)’와 같은 단어들이 실상은 ouk esti와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eon의 생성소멸의 불가능성이란 <eon ouk esti>의 부정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논증의 첫머리에 놓이는 문장은 “oude pote’ ēn oud’ estai, epei nyn estin homou pan, hen, xyneches ·”이다.<sup>15)</sup> 영어의 동사부를 하나의 술 어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색하긴 하지만, 이를 우리말로 옮기자면 “(eon은) 한 때 esti였던 것도 esti일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함께 전부이고, 하나이며, 연속적이므로”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곧바로 “왜냐하면 eon은 지금 함께 전부(homou pan)이고 하나

mounogenes, oulon mounomeleo?, oulomenes 등이 있다.

14) 사본은 모두 ateleston으로 되어 있으며 teleston은 수정이다. 내용상 사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15) 이 구절의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Nor was (eon) once, nor will be, since it is now, all together, one, continuous” .

(hen)이며 연속적(xyneches)이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에 의해 뒷받침된다. “eon이 지금 함께 전부이고 하나이고 연속적이기 때문에, eon은 한 때 esti였던 것도(en) esti일 것도(estai) 아니다.”라는 이 5~6행의 내용이 결국 여기 5~21행 전체의 요지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eon이 지금 함께 전부이고 하나이며 연속적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어지는 6행 이하에서 파르메니데스는 eon이 기원을 갖지 않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ouk esti라고는 말해질 수도(phaton) 생각될 수도(noéton) 없기 때문에, mē eon으로부터는 말하는 것도(phasthai) 생각하는 것도(noein)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나서 마치 결론처럼 다음 문장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완전히 esti이거나 아니거나여야만 한다”.<sup>16)</sup>

이 7~8행의 직설적 서술은 eon이 흡사 어떤 생명체와 같은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sup>17)</sup> 곧바로 약화시킨다. 또한 논증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5행과 11행, “그것은 한 때 esti였던 것도(en, was) esti일 것도(estai, will be) 아니다”와 “그러므로 완전히 esti이거나 아니거나여야만 한다” 역시 eon의 생성소멸의 부정이 말 그대로 탄생과 죽음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성과 소멸을 처음부터 ouk esti와 관련시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입장에 서면, 5~21행의 논의는 esti이며 esti이지 않을 수 없는, 즉 어떤 경우에도 ouk esti여서는 안되는 탐구의 대상, 그리하여 단편 2에서 언급되고 있는 mē eon과 반대로 맑과 지시의 유일한 대상으로서의 eon의 바로 그 본성에 대한 것이 된다. eon이란, “x는 ~이다”에서의 그 ‘~인 것’, 그리고 ‘그 ~으로서 항상 변함 없이 ~인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eon은 일상적 감각경험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일상적 감각경험에 대한 진술로서 “x는 ~이다(x is ~)”는 대부분의 경우 “지금, 여기서”와 같은 숨겨진 조건들을 포함하며 따라서

16) 번역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는 xreōn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17) ‘기원(genna)’, ‘자라다(auxēthen, phyn)’, 그리고 21행의 ‘생성(genesis)’, ‘소멸(olethros)’과 같은 단어들이 이러한 인상을 주는 요인들이다.

"x는 ~아니다(x is not ~)"라는 진술과의 절대적이고 확실한 분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 아니다(is not)'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이다', 즉 '~였다' (ēn, was)나 '~일 것이다' (estai, will be)는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 '~이다(esti)' 일 수가 없는 것이다. "x cannot not be ~"에서의 is만이 진리를 보장하는 is일 수 있으며, 이러한 is의 자격요건은 언제나 변함없이 is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esti, 그리고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앎과 지시의 대상인 eon은 12~18행에서 디케(dikē, 정의) 여신의 족쇄라는 이미지를 통해 구상화된다. eon은 기원을 갖지 않는다, 즉 전적으로 esti이거나 ouk esti이다; 그러므로 eon은 디케 여신의 족쇄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11행, "eon pampan estin ē ouk estin?"은 디케 여신의 족쇄가 풀리는가 풀리지 않는가, eon이 생성소멸하는가 아닌가, 하는 물음과 같다. 그리고 그것이 16행의 "estin ouk estin"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estin ouk estin"은 "eon estin eon ouk estin"과 동일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 물음의 estin과 ouk estin은, 단편 2의 3행과 5행에서 주어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된 estin과 ouk estin일 수도 있다. 이는 단편 2의 재연급이라 할만한 16~18행, "한편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이름도 없는(길은) 내버려둠(왜냐하면 참된 길이 아니므로), 다른 한편의 길은 esti이고 참됨이"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리고 이 두 길 중 어느 것이 진리에로 나아가는 참된 길인가 하는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고 (kekritai) 16~18행은 이야기한다. 첫 번째 길은 esti이고 참된 반면, 두 번째 길은 생각할 수도 이름도 없는 길로서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ouk esti라고는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는 8행으로 다시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 거기서 'ouk esti'는 단편 2의 탐구의 두 길 중 두 번째 길을 지칭하며, 이 길이 바로 말할 수 없기에 이름이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 문맥상 두 경우가 모두 다 가능하고 결론은 <eon emmenai>(알려질 수 있고 지시될 수 있는 대상만이 esti와 결합될 수 있다)로 동일하므로,<sup>18)</sup> 이 두 가지 중 굳

18) 단편 8 안의 to eon은 esti, ēn, estai의 술어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5~21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질 수 있다.

- ▶ eon ḗn, eon estai는 가능한가?  
비유적으로, eon은 기원을 갖는가?
- ▶ 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원은 곧 ouk esti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ḗn, estai는 모두(pampān esti가 아닌) ouk esti이기 때문이다.
- ▶ 그리고 esti와 ouk esti 두 길 중 esti의 길만이 참되고, ouk esti의 길은 생각할 수도 이름도 없는 길로 버려짐이 결정되었으므로, (왜냐하면 mē eon은 알 수도 지시할 수도 없으므로), esti라고만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
- ▶ 따라서 eon esti이고, eon ḗn이나 eon estai, 즉 eon ouk esti는 불가능하다.
- ▶ 다시 비유적으로, eon은 디케 여신의 족쇄에 붙잡혀 있고 생성소멸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eon의 소멸하지 않음에 대한 논의는 5~21행에서 누락되었고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오직 그 생성하지 않음에 대한 논의뿐이라는 비판에 대해 잠시 언급하자.<sup>19)</sup> 사실 이러한 비판은 생성과 소멸을 모두 ouk esti에 대한 비유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to eon esti ~" 뿐 아니라 "x esti to eon"으로도 읽겨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질문은 eon은 esti인가 아닌가, 즉 ~인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인 것은 eon인가 아닌가가 될 것이다. 어느 것을 택하든 이 글에서 취하는 해석 하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편의상 전자의 경우만 고려하기로 한다.

19) Kahn은 eon의 소멸불가능성 논의의 누락을 다음과 같이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는 eon의 생성을 " $0 \rightarrow R$ "이라는 간단한 도식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0은 Not-Being, nothing을 나타내고 R은 실재(Reality), is인 것(what is)을 나타내며, 화살( $\rightarrow$ )은 주장된 생성의 과정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는, 만약 0이나 R의 위치가 바뀐다면, 화살은 소멸을 나타내고 동일한 논변이 소멸의 불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화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소멸의 불가능성에 대한 논변은 생성의 불가능성에 대한 논변의 역순으로서, 즉 화살표의 방향만을 바꾸어 " $R \rightarrow 0$ "이라는 도식을 만듦으로써 쉽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Kahn, C. *op. cit.*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5~21행의 핵심은 비유적 언사들이 아니라 ēn과 estai가 모두 ouk esti에 다름 아니라는 데 있고, 8행에서 이 ouk estis는 말해질 수도 생각될 수도 없다고 명확히 iο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왜 5~7행에서 eon의 생성 및 소멸의 부정이 곧바로 기원의 부정으로 등치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 비유적으로 볼 때, 질문은 둘이지만(eon은 생성될 수 있는가, eon은 소멸될 수 있는가), 실제로는 그 두 질문이 모두 하나의 대답(ouk esti가 아니라 esti라고만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디케 여신의 족쇄 이미지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생성은 디케 여신의 족쇄를 통해 이미지화되며 족쇄는 일반적으로 둑근 원의 모양이다. 이에 기대어, Kahn과 같이 기원을 직선적 과정으로 상상할 것이 아니라,<sup>20)</sup> 원의 이미지로 상상해보자. eon은 pampan esti로서 ouk esti와 완전히 격리되며 그 격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케의 족쇄이다. 기원이 족쇄가 느슨해질 때 생기는 둑근 테와 같은 영역이라면 이 영역에서는 estai, 생성("eon은 ~일/~이 될 것이다" 혹은 "~은 eon일/이 될 것이다") 뿐 아니라 ēn, 소멸("eon은 ~였다" 혹은 "~은 eon이었다") 또한 발생할 것이다. '디케'는 pampan esti만이 진리를 따르는 유일하게 참된 길이라는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4.2. Fr. 8.22~25: eon은 나뉘지 않으며 전체로 연속적이다

4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eon의 불가분성 논증이 보이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특징은 상당히 구상적이며 공간적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τει)”, “함께임(synechesthai)”, “차 있다(empleon)”, “가까이 가다(pelazei)”와 같은 이러한 말들은, 앞의 5~21행에서 등장한 디케 여신의 족쇄에 뮤인 eon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eon pampan esti ouk esti”이고 ouk esti라

20) 각주 19) 참고.

고는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으므로, eon은 디케 여신의 족쇄에 묶여 생성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족쇄 안에 갇힌 eon은 ouk esti와 완전히 분리되어 pampan esti이므로 더와 덜의 구분을 갖지 않고 전체로 동등 혹은 동질적(pan homoion)이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로 동등한 eon은 전체로 eon으로 차 있고 eon에 가까이 간다. 둑근 족쇄 안에 꽉 묶인 이러한 eon을 입체처럼 머리 속에서 구상화시켜 볼 때, “차 있다(empleon)”는 말이나 “가까이 간다(pelazei)”는 말은 보다 쉽게 이해된다. 이렇게 구상적 용어들의 사용에 있어, 22~25행은, 앞선 5~21행의 eon의 생성소멸의 불가능성 논증과 밀접히 관련된다.

22~25행의 논증의 두 번째 특징은, 이 논증의 결론이 그 논거 속에 이미 나타난다는 것, 즉 논증에 순환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23행에서 파르메니데스는 “이는 그것이 함께임을 방해할 수 있다(to ken eirgoi min synechesthai)”라고 한다. 이는 eon이 여기서나 저기서 조금이라도 더이거나 덜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내용이며, 결국 eon의 연속성의 논거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synechesthai라는 말은 xyneches의 동근어이다. 따라서, 말을 바꾸면, 이 부분의 논증은 “eon은 함께이므로(synechesthai), eon은 연속적(xyneches)”이라는식의 순환논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xyneches라는 단어는 이미 단편 8의 6행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거기서 파르메니데스는 eon은 지금 함께 전부이고 하나이고 연속적(xyneches)이라고, 그래서 eon ēn도 eon estai도 아니라고 한다. 앞의 5~21행 논증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그 논증의 전제가 <ouk esti라고는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est이라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임을 밝혔다. 그리고 5~6행의 eon이 지금 함께 전부이고 하나이고 연속적이라는 내용은 이 전제에서 나온 귀결이다.

따라서 이 부분 22~25행은 아무래도 eon의 생성소멸 불가능성 논증과 대등한 또 하나의 논증이라 보기 어렵다. eon의 연속성은 eon의 생성소멸 불가능성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파르메니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떼어 서술했으며 또 여기에 독립적 표지를 할당했는가? 나는 그 이유가 eon의 연속성에 대

한 특별한 강조의 필요성 때문이었으리라고 본다.

*eon*의 불가분성 혹은 연속성에 대한 파르메니데스의 강조는 *eon*을 존재(하는 것)이나 참(인 것)으로 해석할 때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 존재가 연속적이라거나 존재하는 것들이 연속적이라는 것은, 그리고 참이 연속적이라거나 참인 것들이 연속적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eon*에 술어적 의미를 준다면 그것은 <~인 것은 불가분이고 연속적>이라는 내용이 되며, 이는 ~인 것은 바로 그 ~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 것은 ~인 바로 그것인 한에서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eon*의 연속성이 의미하는 바라면, 그것은 “*eon esti agenēton/anōlethron*”과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다. 애초에 *eon*이 생성하지도 소멸하지도 못하는 것은, 그럴 경우 <*eon ouk esti*, 즉 ~인 것이 ~아니다>가 되기 때문이었고, 여기서 *eon*이 나뉠 수 없고 연속적이어야만 하는 것도 *eon*이 나뉘고 불연속적일 경우엔 <*eon ouk esti*, 즉 ~인 것이 ~아니다>가 된다는, 바로 그 동일한 이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5~21행에서 등장하는 *ēn*과 *estai*가 *pampan esti*가 아닌 사이비 *esti*로서 실상은 *ouk esti*이라는 점에 의해 기각되듯이, 22~25행에서도 *ti mallon (esti)/ti cheiroteron (esti)*이 *ouk esti*라는 점에 의해 기각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파르메니데스의 *esti*는 *pampan esti*임이 드러난다.

첨언하면, 위에서 시도한 술어적 의미의 해석은 단편 2의 *mē eon*에 대한 언급에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mē eon*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지시될 수도 알려질 수도 없다. ‘~아닌 것’은 말 그대로 ~ 아닐 뿐 아니라 나아가 어떤 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mēden*이 된다. 단편 6에 등장하는 *mēden*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mēden*은 *mē eon*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한층 더 강조하는 것으로, 존재적 해석이나 진리적 해석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 4.3. Fr. 8. 26~31: eon은 부동/불변이다.

이제 검토할 26~31행도 그 주장의 근거를 5~21행에서 논증된 eon의 생성소멸의 불가능성에 갖는다는 점에서, 22~25행과 마찬가지로 eon의 생성소멸 불가능성의 논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26~31행에서는 eon의 부동성 혹은 불변성(*akinēton*)이 논증된다고 말해지며, 이는 3~4행에서 열거된 표지를 중 움직이지 않음(atremes)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주장되는 것은 <eon이 시작도 끝도 없이 부동/불변이라는 것>, 즉 <eon은 굳건히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akinēton*이 과연 부동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불변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일단 이 논증의 전제는 앞에서 이미 내려진 결론, 즉 eon의 생성소멸의 불가능성임이 27~28행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분명하다. 그리고 eon의 생성소멸의 불가능성 논증과 eon의 부동성/불변성 논증 간의 관련성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는 페라스의 이미지에서도 보여진다. 26~27행 그리고 30~31행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eon이 부동/불변인 이유는 그것이 아낙케의 페라스에 묶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미지는 5~21행에서 등장했던 디케 여신의 족쇄와 유사하다. 따라서 5~21행에서 논증된 eon의 생성소멸의 불가능성이 eon의 부동성/불변성을 논증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파르메니데스는 29~30행에서 “eon은 동일하게 동일한 것 안에 그 자체로 머물러 놓여졌고 따라서 굳건히(empedon) 그 자리에 머무른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강력한 아낙케가 eon을 양편에서 막고 있는 페라스의 끈들 안에 붙잡고 있어서”라는 전제의 귀결임을 고려해볼 때, 그리고 “머물러 놓여졌고 따라서 그 자리에 굳건히 머무른다(menon keitai xoutōs empedon authi menei)”는 구절의 공간적 색채를 고려해볼 때, 일단 이 두 번째 결론은 장소 변화의 부정, 즉 eon의 부동성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sup>21)</sup> 그런데 여기서 29행, “동일하게 동일한 것 안에 그 자체로(tauton t'en tautōi te

kath'auto)"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이 그것이 있는 장소에서 움직임 없이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그 경우 그것이 언제나 동일하게 동일한 것 안에 그 자체로 머물러 놓여져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eon이 동일하게 동일한 것 안에 그 자체로 머물러 놓여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다. 이 구절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면 akin ton의 의미 또한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의 eon의 생성소멸 불가능성 논증과 연속성 논증의 분석에서, 그 두 논증이 주장하는 바가 기실 크게 다르지 않으며, 파르메니데스가 무엇보다도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ouk esti의 거부에 있음이 보여졌다. 따라서 eon의 부동성/불변성 논증의 전제가 eon의 생성소멸 불가능성이라면, eon의 부동성/불변성 또한 근본적으로는 ouk esti의 부정에 기반을 둘 것이며, eon의 연속성과도 그런 의미에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eon의 운동/변화 또한 <eon ouk esti>를 의미하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운동/변화하는 eon은 더이상 동일하게 동일한 것 안에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경우, 즉 단편 2에서의 "is and cannot not be"인 경우가 아닌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eon에 술어적 의미를 줄 때 eon의 연속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됨을 보았다. 그리고 여기서도 존재적 해석이나 진리적 해석은 29행을 적절히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존재(하는 것)은 더 이상 동일하게 동일한 것 안에 그 자체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참인 것이 참이 아니게 된다면, 참인 것은 더 이상 동일하게 동일한 것 안에 그 자체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것들은 모두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며, "동일(tauton)"이라든가 "그 자체로(kath'auto)"와 같은 말이 사용된 이유를 적절히 설명해주지도 그 말들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주지도

21) Cornford는 atremes, 즉 부동성은 일반적으로 신성한 속성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한다. 그는 파르메니데스의 atremes를 Xenophanes의 단편 26과 연관짓는다.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 항상 머물러 있다.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Cornford, F. M. *Plato and Parmenides*(London, 1958).

못한다.

eon에 술어적 의미를 줄 때에만이 이러한 말들이 사용된 이유는 비로소 그럴듯하게 납득이 된다. 앞에서 우리는 eon의 연속성/불가분성이 뜻하는 바를 <~인 것은 ~인 바로 그것인 ~이며, 결코 더 나 덜 ~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보았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이다. ~인 것은 ~인 바로 그것이 아니게 되면, 더 이상 그 자체인 바로 그것이 아니며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akinēton은 <~인 것은 항상 ~인 것 그 자체로 동일하게 머무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이냐 불변이냐 하는 논쟁 전에 akinēton의 우선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akinēton은 agenēton이나 anōlethron 그리고 xyneches와 마찬가지로, <eon ouk esti>의 부정과 그로부터의 결과를 서술하는 비유적 수사에 가깝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동/불변 중에서 택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확실히 22~25행에서 등장했던 공간적 함의를 갖는 여러 단어들처럼 여기 26~31행에서도 그러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우리가 akinēton을 “부동”이라고 옮기는 것은 물론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akinēton이 부동을 뜻하건 불변을 뜻하건 그 말은, eon 즉 ~인 것이, ~인 바로 그것인 한 그것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부동이거나 불변인 것이다.

#### 4.4 Fr. 8. 32~33: eon은 완전하다

32-33행에서 파르메니데스는 eon의 완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 문제는 32행, “이 때문에(houneken) to eon이 불완전함(ateleutetos)은 옳지 않다”의 첫 단어인 houneken의 뜻과 33행 “왜냐하면(그것은) 결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여하고 있다면(그것은) 모든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의 함의가 무엇인가에 있다.

houneken은 hou와 heneka의 합성어로, 관계대명사 hou가 지시하는 특정한 내용을 갖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 때문에, 따라서”의 의

미로도 “왜냐하면”의 의미로도 사용된다.<sup>22)</sup> 따라서 hou에 해당하는 내용이 32행 이전에서 찾아질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hou가 앞의 26~31행에서 서술된 eon의 부동성 혹은 불변성에 대한 주장이라고 보게 되면 32행은 <eon은 부동/불변이므로 따라서 완전하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반면 houneken이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왜냐하면”을 의미한다면, eon의 부동성 혹은 불변성은 되려 eon의 완전성의 결과가 되고, eon의 완전성은 eon의 부동성 혹은 불변성의 근거가 될 것이다. Coxon은 후자의 경우를 취해 26~31행에서 증명되는 eon의 불변성의 근거는 eon의 생성과 소멸의 부정이 아니라, eon의 완전성이라고 한다.<sup>23)</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eon의 완전성이 단편 8 전체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해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eon의 부동성 혹은 불변성 논변의 근거가 우리가 앞에서 본대로 생성과 소멸의 부정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sup>24)</sup>

그러므로 32행의 ‘houneken’은 ‘따라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eon의 부동성 혹은 불변성이 eon의 완전성을 도출해내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이다.<sup>25)</sup> 실마리는 위에서 우리가 이미 주목한 바 있는 29행에서 찾아질 수 있다. 거기서 파르메니데스는 eon은 동일하게 동일한 것 안에 그 자체로 머물러 놓여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는 <~인 것은 항상 ~인 것 그 자체로 동일하게 머무른다>로 이해했었다. 그리고 teleston과 동근어인 telos가 끝, 완결, 완성 등의 의미를 지님을 고려할 때, teleston/teleion은 “다 끝나서 즉 완결되어서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는 /미진한 데가 없는 그런 완결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eon의 완전성은 그것이 ~인 그 자체로 항상 동일하게 머무

22) c.f. Smyth, *Greek Grammar*. N. 2240a, 2578.

23) Coxon, A. *The Fragments of Parmenides*(Assen, 1986).

24) Curd도 Coxon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유사한 반대 입장을 보인다. Curd, P. K. *The Legacy of Parmenides*(Princeton, 1998).

25) Mourelatos는 houneken이 eon의 부동성에 대한 즉각적 지시라고, eon의 완전성(full actuality)은 그 부동성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나 이는 텍스트상에서 그나지 명확하지 않다. Mourelatos, A. P. D. *The Route of Parmenides*(New Haven, 1970).

르므로, 아무 것도 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 것은 항상 바로 그 ~인 그것이어야 한다. 파르메니데스에게 esti는 pampan esti이기 때문이다. 반면 ~인 것이 어떤 것을 결여한다면 그것은 ~인 동시에 ~이 아니고, 따라서 그 ~이 아님에서, 나아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어떤 무엇이라고도 이야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단편 6의 mēden이 갖는 의미이며, “결여한다면 (eon은) 모든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33행은 바로 이와 연결되어 이해된다.

#### 4.5. Fr. 8. 34~41: eon과 noein

완전성의 표지에 대한 서술인 34~41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34 행, “tauton d'esti noein te kai houneken esti noēma ·”이다. 34~38행은 34행의 주장과 그에 대한 세 가지의 근거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도해된다.

- 가) 전체로 부동/불변이도록 모이라가 그것(eon)에 족쇄를 채웠다.
  - 나) 따라서 to eon 외에 다른 어떤 것도 esti이거나 estai가 아니다.
  - 다) 따라서 말해진 것(pephatismenon)은 to eon에 있는데 이 to eon 없이는 noein을 찾지 못할 것이다.
- ∴ 따라서 “tauton d'esti noein te kai houneken esti noēma ·”이다.

가)는 eon의 생성 소멸의 부정에 대한 논변에서 이미 등장했던 디케 여신의 족쇄와 eon의 부동성/불변성 논변 및 완전성 논변에서의 아낭케의 페라스의 끈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모이라의 족쇄 채움의 결과는 eon 외의 다른 어떤 것도 esti나 estai이지 않다는 것이다. 파르메니데스는 이로부터 곧바로, 말해진 것(pephatismenon)이 있는 eon 없이는 noein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34행, “tauton d'esti noein te kai houneken esti noēma ·”의 직접적 근거이다.

가)는 eon이, ~인 것인 바로 그 ~으로서, 언제나 동일하고 그러

므로 부동/불변(akinēton)임을 뜻한다. 나)는 가)의 귀결이며, eon의 생성소멸 불가능성으로 거슬러올라간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단편 2와 6의 1~2행 분석에 의해 추론되었던 내용, 〈eon은 esti일 수 있으므로, eon esti라고 말하고 생각해야만 한다〉, 〈mēden은 esti일 수 없으므로, mē eon esti라고 말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와 잘 들어맞는다. eon esti라고 말하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은 eon 외의 다른 어떤 것도 esti나 estai가 아니라는 나)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앎과 지시의 대상은 eon과 mē eon이며, 말함과 생각함의 대상은 esti와 ouk esti라는 앞에서의 주장을 전제 다)에 적용하면, 말해진 것이 to eon에 있다는 것은, 알려질 수 있고 지시될 수 있는 eon만이 esti라고, 즉 eon esti라고 말해질 수 있고 또 생각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된다. 그리고 이 때에만 비로소 생각함(noein)은 가능한 것이다. 결국 전제 가), 나), 다)를 통해 파르메니데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의 단편 2와 6의 1~2행 분석에서 이미 찾아낸 바 있는 〈eon esti라고만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를 기초로 결론인 34행을 해석해보기로 하자. 이 구절 “tauton d'esti noein te kai houneken esti noēma”에서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te kai가 병렬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와 houneken의 의미이다. te kai가 병치시키는 것을 noein과 houneken esti noēma라 본다면 34행은 이 둘이 동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houneken이 that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 때 noēma는 houneken esti와 동격이 된다. 이런 번역 하에서 34행은 “생각함과, esti라는 생각은 동일하다”는 내용이 된다. 반면 houneken을 관계사로 볼 경우에는 “생각될 수 있는 것과 생각의 원인은 동일하다”는 것이 34행의 내용이 된다.<sup>26)</sup>

그러나 eon이 noēma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두 번째 해석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6) 첫 번째를 택한 사람들은 Cornford, Kirk/Raven, Tarán, O' Brien, Gallop, McKirahan 등이고, 두 번째 안은 Mourelatos, Curd, Burnet, Coxon 등에 의해 지지된다.

첫 번째 해석은 *noēma*를 *houneken esti*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는 우리가 *esti*라고 말하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보다 그럴 듯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번역의 가능성도 있다. *houneken*을 “따라서”로 옮기고 *tauton*을 *tauton esti noēma*와 *tauon esti noein*의 주어로 보는 것이다. 이 때 34행은 “동일한 것이 생각될 수 있고 따라서 동일한 것이 생각이다”가 된다. 이 번역은 *tauton*을 강조하며, 이 때의 *tauton*은 ~인 그 ~으로서 항상 그러한 것, *eon*을 의미한다. *tauton*은 앞의 부동성/불변성 논증의 29~30행, “*eon*은 동일하게 동일한 것 안에 (*tauton t'en tauōi*) 그 자체로 머물러 놓여졌고 따라서 굳건히 (*empedon*) 그 자리에 머무른다”에서 이미 사용되었다. 그리고 30행의 “*empedon*”(굳건히)은 14행의 *peda*(족쇄) 및 37행의 *pedaō*(족쇄 채우다)와 연결되어 생성소멸 불가능성 논증에서의 *eon*의 이미지로 돌아간다.

가사자들은, *esti*라고만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 *eon*만이 앎과 지시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진정한 *noein*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mē eon*을 알고 지시하는 것, *ouk esti*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생성과 소멸, ~임과 ~아님, 장소의 변화와 표면을 통한 밝음의 변화 등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모두 이러한 오류의 산물이다.

#### 4.6. Fr. 8. 42~49: *eon*은 구(球)와 같다

이제 *alētheia*, 진리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에서 *eon*은 구(*sphaira*)에 비유된다. 그리고 이 비유는 완전성(*tetelesmenon*)에 대한 것임이 첫 42행의 “*tetelesmenon*”(완료된)에서 분명하다. *eon*이 구에 비교될 수 있는 이유는 “페라스가 맨 끝이므로”라고 말해진다. 그리고 이 비유는 계속 나아가서, *eon*은 “중앙으로부터 모든 곳에서 동등하다”<sup>27)</sup>고 다시 말해진다.

27) 이 구절에 해당하는 회립어는 *messothen isopales*이다. *isopales*는 동등함을 뜻하는 *iso*와 싸움, 레슬링 등을 뜻하는 *pales*의 합성어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isopales*는 동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페라스가 맨 끝이므로” (peiras pymaton)라는 말에서 우리는 단편 8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했던 족쇄와 페라스의 이미지들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앞의 5~21행 분석에서, 족쇄에 뚫인 eon이 일종의 원형으로 형상화되었을 가능성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구의 비유도 그리 낯설거나 기묘한 것은 아닐 터이다.

42~49행에서 eon이 구로 비유되는 근거는 세 번에 걸쳐 다음과 같이 이야기된다.

- 가) eon은 여기서나 저기서 조금이라도 더 크거나 적거나 해서는 안된다.
- 나) eon은 불가침이므로 eon이 동일한 것으로 음을 방해할 수 있는 ouk eon, ouk eon ouk esti이고, eon은 eon보다 여기서는 더 여기서는 덜일 수도 없다.
- 다) eon은 모든 방향으로부터 그 자신과 같고 페라스들에 동등하게 놓여 있다.

위의 세 가지 근거 중 가)와 나), 그 중에서도 특히 나)는 앞의 eon의 연속성 혹은 불가분성 논증을 상기시킨다. eon의 연속성 논증에서, eon은 전체로 동등(pan homoio)하므로 불가분이고 여기서나 저기서 더나 덜이 아니라고, eon은 eon으로 전체로 차 있고 (empleon) 따라서 연속적이라고 말해졌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된 homoion과 유사한 단어들이 여기 구의 비유 부분에서도 발견된다. 47행의 homon, 9행의 homos en peirasi kyrei의 homos가 그것이다. 22행의 homoion이 ‘동질적’ 보다는 ‘동등한’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러움은 여기 구의 비유에서의 en peirasi kyrei에서도 보여진다. 이 부분의 homos를 ‘동질적’으로 옮기는 것은 문맥을 매우 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모든 방향에서 언제나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유일한 도형이며 그 표면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언제나 같은 유일한 도형이라는 구의 형태적 특성과 관련된다. 또한 이러한 구의 형태적 특성이 가)에서 이야-

기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구는 모든 방향에서 언제나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도형이므로 여기서 더 크고 여기서 더 작고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앞의 34~41행 분석에서 나는 34행에 대한 기존의 해석 외에 *esti*, *eon*의 술어적 의미를 한층 강조할 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을 제안했었다. 그 해석은 *tauton*을 *pampan esti*로서의 *eon*을 뜻하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었다. 이는, 다시 바꾸어 말하면, “*x is y*”가 진리이려면 거기서의 *is*(*esti*)에 연결되는 *x*, *y*가 각각 다시 “*x is x*”, “*y is y*”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x*, *y*는 그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서 읽과 지시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파르메니데스의 요구를 자기동일성(*self-sameness*)이라 부르고자 한다. 이는 “*is and cannot not be*”, “*pampan esti*”라는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을 뜻한다.

다)는, 구의 형태에 대한 묘사 이전에 *eon*, *esti*의 이러한 자기동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든 방향으로부터 그 자신과 같다(hoi pantōthen ison)”, “페라스들에 동등하게 있다(homōs en peirasi kyrei)”에서의 *pantōthen*과 *peirasi*는 단순히 구라는 도형의 형태적 특징 제시를 넘어 *eon* 자체의 자기동일성의 부각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ison*과 *homōs*를 가장 자연스럽고도 두드러지게 문맥 속에서 드러나도록 해석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구의 비유는 일차적으로는, 파르메니데스가 단편 8의 *eon*의 표지들에 대한 서술과 논증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eon*, *esti*의 자기동일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모든 방향, 모든 측면에서 언제나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유일한 고체라는 형태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구는 *eon*의 자기동일성을 가장 성공적으로 적절히 구상화하는 이미지로서 채택된다. 물론 이차적으로 구의 비유는 또한 파르메니데스 자신이 주장하는 *eon*, *esti*의 의미, 즉 *pampan esti*로서의 자기동일성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끌어들인 이미지들의 귀결이기도 하다. 일찍이 *eon*의 생성소멸 불가능성의 논증에서 파르메니데스는 족쇄의 이미지를 도입했었고, 이후의 페라스의 이미지와 더불어 *eon*은 이미 원형의 구와 같은 형태로 구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5. esti/eon(is, what-is)과 noos/noein(mind, thinking): Fr. 3~4.

지금까지의 해석 하에서,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진 단편 3 “..... to gar auto noein estin te kai einai(생각함과 ~임은 동일하다)”은 “생각함(noein)과 esti라는 생각(houneken esti noēma)은 동일하다”는 단편 8의 34행이나 “말해진 것은 to eon에 있으며 이 to eon 없이는 noein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단편 8의 35~36행의 내용과 같다.

esti에 존재적 의미를 주는 학자들은 단편 3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생각함과 존재함은 동일하다”는 것은 파르메니데스의 하나인 존재를 두 개로 만들게 되며, 이는 전혀 불가능한 논센스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단편 3을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것과 같다”로 옮긴다.<sup>28)</sup> 그러나 이 두 번역은 술어적 해석에서는 모두 채택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요지는 ~라고만(esti)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einai와 noein의 밀접한 관계는 단편 4에서도 강조된다. 1행 “leusse d' homōs apeonta noōi pareonta bebaōs”는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 “떨어져 있음에도 누스에(noōi) 단단히 붙어 있는 것들을 보라”와 “떨어져 있음에도 단단히 붙어 있는 것들을 누스로서(noōi) 보라”가 그것이다. 전자를 취하면 자기 자신에 붙어 있는 eon이 또 한 누스에도 붙어 있다는 것이 되고, 후자를 취하면 eon이 자기 자신에 붙어 있음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스가 된다. 떨어져 있는 것들(apeonta)은 사실은 noos에 붙어 있는 것들(pareonta)이거나, noos로 볼 때에는 붙어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다.

단편 4의 내용은 eon의 불가분성 혹은 연속성에 대한 논증인 단편 8의 22~25행의 내용을 연상시킨다. 이 부분은 특히 존재적 의미나

28) 이렇게 되면 파르메니데스는 생각의 범위는 오직 존재(자)에만 한정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는 단편 8에서 esti의 가장 두드러진 의미로 드러나는 자기동일성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진리적 의미로는 적절하게 해명되기 어렵다. eon은 암과 지시의 대상으로서, ~이고 항상 변함없이 ~인(esti) 것이다. 즉 자기동일적이다. 이것이 단편 4의 2행 “eon은 eon의 불음으로부터 떼어내질 수 없다”의 의미이다.

단편 4에서 흥미로운 것은, eonta라는 eon의 복수형이 직접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apeonta, pareonta에 의해 eon이 다수일 수 있음이 암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의 해석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Curd도 지적하고 있듯이, 파르메니데스의 eon은 그 내적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연속적이고 하나인 것이며, 이는 eon이 여럿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기 때문이다.<sup>29)</sup> x나 y와 같은 대상들은, 그것들이 무엇이든 알려질 수 있고 지시될 수 있는 탐구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즉 자기동일적이어야 한다는(x is x, y is y) 그 조건만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eon이라 불릴 수 있다.

또한 술어적 해석은, 단편 4의 3~4행의 “질서에 따라(kata kosmon)”, “흘어진(skidamenon)”, “합쳐진(synistamenon)”으로부터 파르메니데스와 이오니아 철학자들을 관련시킬 수 있게 한다. 이오니아 철학자들이 “만물은 물/아페이론/공기이다(all the things are water/apeiron/air)”라고 할 때의 are는 파르메니데스의 esti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파르메니데스는 생각함과 말함에 있어 사용되는 esti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자기동일적 대상과만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오니아 철학자의 원질은 다양한 만물로 변화하고, 다양한 만물을 생성시키며, 또 그 만물이 소멸되어 다시 돌아가는 일종의 질료와 같은 것이다. 이 원질은 파르메니데스에게는 암과 지시의 대상이 못 된다. 즉 mē eon이다. 그리고 그러한 mē eon을 esti와 관련시킨다는 점에서, 그들은 말해질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된다. 파르메니데스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전혀 배울 수 없는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파르메니데스는 이오니아 철학자들의 arche에 대한 주장들이 무반성적으로 사용하는 esti 자체에

<sup>29)</sup> Curd, P. K. *op. cit.*

대한 물음을 제기하여, 이오니아 철학자들의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6. 술어적 해석의 장단점

지금까지 나는 술어적 해석에 따라 ‘진리의 길’ 부분에 해당하는 단편들을 일관적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제 나는 술어적 해석의 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들을 살피면서 이 글을 맷으려고 한다. 술어적 해석이 갖는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온 것은 그 것이 생성소멸의 불가능성과 부동성/불변성을 사실상 같은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에 대한 대답은 이미 앞에서 주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단편 8의 분석에서, eon의 표지들이 그 첫 번째 표지인 생성소멸의 불가능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 생성소멸 불가능성이 다루어지는 부분의 핵심은 *〈eon ouk esti〉*의 부정 외의 다른 것이 아님이 보여졌기 때문이다. eon의 모든 표지들이 겨냥하는 것은 ~인 것, eon이 그 자신과 동일하지 않게 될 어떤 가능성도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성소멸 불가능성의 표지가 포괄적으로 다름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연속성/불가분성 표지는 양에 있어서의 다름의 부정으로, 반면 부동성/불변성 표지는 질에 있어서의 다름의 부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름의 거부를 나는 자기동일성(self-sameness)라는 말로서 나타내보려 했다.

술어적 해석에 대한 또다른 반론은 파르메니데스의 *ouk esti* 기각이 결국 모든 부정 술어의 기각이라는 불합리한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Barnes는 이는 곧 *〈X is not F〉* 형태의 모든 문장의 거부이나, 이러한 주장을 파르메니데스에게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파르메니데스는 단편 8의 22행에서도 보이듯 이러한 형식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30)</sup> 그러나 단편 8에서 나

---

30) Barnes, J. *op. cit.*

타나는 *〈eon ouk esti (diaireton)〉* 형식의 문장에서의 ouk esti는 그가 거부하는 단편 2에서의 ouk esti가 아니다. *〈eon ouk esti (diaireton)〉*은 알려질 수 있고 지시될 수 있는 자기동일적 대상만이 esti와 결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eon esti〉*의 다른 표현이며, 단편 2의 esti에 대한 설명으로서의 ouk esti이다. 파르메니데스에게서 ouk esti가 거부되는 이유는 그것이 알려질 수 있고 지시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반면 여기 *〈eon ouk esti (diaireton)〉*에서의 ouk esti는, 단편 2의 esti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용된 일종의 메타언어이다.

마지막으로, 존재적 해석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제기되는 술어적 해석에 대한 비판은, 술어적 해석이 estin ouk estin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로 옮길 때 드러나는 상호배제성을<sup>31)</sup> 존재적 해석에서 만큼 충분히 성립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술어적 해석에서 “어떤 것이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는, 사람임과 사람아님 간의 상호배제성이 존재와 비존재 간의 상호배제성만큼 뚜렷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람과 사람 아님을 사람과 동물로 바꾸어 볼 때, 동물은 사람을 포함하므로, 술어적 해석은 estin ouk estin에서의 estin과 ouk estin간의 상호배제성을 전혀 성립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이 주장하는 술어적 해석에서, 사람임과 동물임은 estin ouk estin의 예가 될 수 없다. 사람 아님이 동물임으로 변환될 때 동물임은 이미 또다른 eon이며 결코 mē eon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esti, eon을 해석할 때, 술어적 해석 역시 존재적 해석에서와 마찬가지로 estin과 ouk estin의 칠저한 상호배제성을 성립시킬 수 있다.<sup>32)</sup>

31) 김남두, “파르메니데스에서 탐구의 길”(98년 9월 한국 서양고전철학회 발표논문)

32) 이러한 esti, eon의 자기동일성에 대해서는 존재적 해석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동의를 표한다. Burnet은 파르메니데스의 eon이 결코 그 자신의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며, Cornford는 eon은 파르메니데스에게 엄격하고 절대적 의미를 갖는다고 즉 어떤 사물은 is이거나 is not이라고 한다. Tarán은 파르메니데스의 가장 중요한 학설이 동일성의 영원성과 다름의 불가능

## 7. 나가며

지금까지 이 글에서 나는 esti, eon에 술어적 의미를 주어 파르메니데스의 단편들을 해석하고, 그러한 해석이 정당함을 보이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 분석의 범위는 '진리의 길' 부분에만 국한되었으므로, 여기서 시도된 술어적 해석은 '독사의 길' 부분과, 서문의 구조 및 파르메니데스의 단편들이 이루고 있는 서사시적 구성의 합의의 분석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텍스트 내적 작업 외에도,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이 그 이전의 철학자들, 피타고라스 학파의 학설들 그리고 그 이후의 철학자들의 학설과 맷고 있는 관련성이 전체적으로 조망될 때, 파르메니데스의 단편들은 비로소 완성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글에서 작업되지 못한 것들이다.

---

성이라고 한다. 나는 존재적 해석에 술어적 해석의 측면이 포함되며, 존재적 해석이 오히려 술어적 의미(~이다) 위에 존재적 의미(~은 있다)까지를 esti에 불필요하게 덧붙인 것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 텍스트와 주석

- Burnet J., *Early Greek Philosophy* (New York, 1957).
- Cornford F. M., *Plato and Parmenides* (London, 1958).
- Coxon A., *The Fragments of Parmenides* (Assen, 1986).
- Curd P. K., *The Legacy of Parmenides* (Princeton, 1998).
- Diels H. · Kranz W.,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Berlin, 1951).
- Gallop G., *Parmenides of Elea* (Toronto, 1984).
- Kirk G. S. · Raven J. E. · Schofield M.,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Cambridge, 1983).
- Mourelatos A. P. D., *The Route of Parmenides* (New Haven, 1970).
- O'Brien D. · J. Frère J., *Études sur Parménide* (Paris, 1987).
- Tarán L., *Parmenides*, (Princeton, 1965).

### ▶ 논문들

- 김남두, “파르메니데스에서 탐구의 길”(98년 9월 한국 서양고전철학회 발표논문).
- 박희영, “희랍철학에서의 einai, to on, ousia의 의미”, 『서양 고대철학의 세계』(서광사, 1995).
- 송영진,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에 대하여”, 『서양 고대철학의 세계』(서광사, 1995).
- Curd P. K., “Parmenidean monism”, *Phronesis* 36 (1991).
- Finkelberg A., “Parmenides' Foundation of the Way of truth”,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6 (1988).
- \_\_\_\_\_, “Parmenides: between material and logical monism”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1990).
- Von Fritz K., “Nous, Noein, and their Derivatives in Pre-Socractic Philosophy”, *The Presocratics* (ed. Mourelatos, A. D., Princeton, 1974).

- Furth. M., "Elements of Eleatic Ontology", *The Presocratics* (ed. Mourelatos, A. D., Princeton, 1974).
- Kahn. C., "The Thesis of Parmenides", *Review of Metaphysics* 22 (1966).
- \_\_\_\_\_, "The Greek Verb 'To Be' and the Concept of Greek", *Foundation of Language* 2 (1966).
- Kerferd. G., "Parmenidé", *Phronesis* 34 (1989).
- Mackenzie. M., "Parmenides' Dilemma", *Phronesis* 27 (1982).
- Mourelatos. A. P. D., "Some Alternatives in Interpreting Parmenides", *The Monist* 62 (1979).
- Owen. G, "Eleatic Questions" (1960), *Logic, Science, and Dialectic* (ed. M. Nussbaum, New York, 1986).
- Reinhardt. K.,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parts of Parmenides' monism", *The Presocratics* (ed. Mourelatos, A. D., Princeton, 1974).

#### ▶ 기타

- Barnes. J.,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London, 1982)
- Guthrie. W., *A History of Greek Philosophy* (Cambridge, 1965)
- McKirahan. R., *Philosophy before Socrates* (Indianapolis, 1994)